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대학동아리 연합공연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탈무드
활동시간	2024. 08. 12	비고	
활동목적	<p>1. 본회는 밴드 동아리로서 음악에 대한 실력증진과 팀활동을 통한 멤버십 등 통상 밴드에 부합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p> <p>2. 다른 대학교와의 연합 공연을 통해 경희대학교를 알리고, 서로의 음악과 시스템을 공유하며 발전을 추구하고 연대하는 시간을 가진다.</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홍대 그림 라이브하우스</p> <p>활동내용 및 소감 :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밴드동아리 아웃사이드, 서강대학교의 여러 밴드동아리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결성된 팀 잔나비와 함께 홍대의 그림 라이브하우스라는 곳에서 연합공연을 진행하였다. 탈무드는 총 9곡을 연주하였다.</p> <p>이번 연합공연은 탈무드가 직접 주관했다. 공연의 이름은 라쿠나의 노래에서 따온 '언제나 여름'으로 우리의 청춘이 언제나 여름처럼 뜨겁길 소망하는 의미에서 정하였다. 탈무드가 주관하는 공연이고, 학교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는 연합공연이기에 더욱 곡의 완성도와 퀄리티에 중점을 두고 합주를 진행했다. 탈무드는 요루시카의 그래서 나는 음악을 그만두었다, 검정치마의 Flying Bobs, Artic Monkeys의 Arabella, Jet의 Are you gonna be my girl, 김건모의 서울의 달, 라쿠나의 언제나 여름, 쏜애플의 매미는 비가 와도 운다,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 Breaking Benjamin의 Skin을 연주하였다. 우리 동아리는 J-pop, 한국 인디락, 개러지락, 하드락, 메탈까지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였는데, 아웃사이드 역시 한국 인디락과 메탈 계열의 하드한 곡을 넘나들며 연주하였고, 팀 잔나비는 여러 밴드에서 잔나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만큼 셋리스트를 잔나비의 노래로만 채웠다. 연합공연을 진행하며 다른 학교의 굉장한 실력자들과 악기와 밴드, 음악에 대해 교류할 수 있어 실력 증진에 대한 동기와 조언 등을 얻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관객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무대에 열광하며 뛰어놀고,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는 모습에 행복함을 느끼고 연습했던 시간에 대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홍정범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대학동아리 연합공연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탈무드
활동시간	2024. 08. 17	비고	
활동목적	<p>1. 본회는 밴드 동아리로서 음악에 대한 실력증진과 팀활동을 통한 멤버십 등 통상 밴드에 부합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p> <p>2. 다른 대학교와의 연합 공연을 통해 경희대학교를 알리고, 서로의 음악과 시스템을 공유하며 발전을 추구하고 연대하는 시간을 가진다.</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행궁동 주크박스 라이브 클럽</p> <p>활동내용 및 소감 : 아주대학교의 밴드동아리 모스, 경기대학교의 밴드동아리 락커빌리와 함께 수원 행궁동의 주크박스 라이브 클럽이라는 곳에서 연합공연을 진행하였다. 탈무드는 총 9곡을 연주하였다.</p> <p>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실력을 익히 알고 있어 같이 공연하고 싶었던 밴드들과 공연하게 되어 기대가 많이 되었다. 학교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는 연합공연이고 다른 밴드들에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더욱 곡의 완성도와 퀄리티에 중점을 두고 합주를 진행했다.</p> <p>탈무드는 요루시카의 그래서 나는 음악을 그만두었다, 검정치마의 Flying Bobs, Artic Monkeys의 Arabella, Jet의 Are you gonna be my girl, 김건모의 서울의 달, 라쿠나의 언제나 여름, 쏜애플의 매미는 비가 와도 운다,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 Oasis의 Don't look back in anger을 연주하였다. 우리 동아리는 J-pop, 한국 인디락, 개러지락, 하드락, 브릿팝까지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였다. 모스와 락커빌리 모두 우리가 합주를 진행했던 곡, 앞으로 하고 싶은 곡들로 셋리스트를 꾸려 그들이 곡을 우리와 어떻게 다르게 해석했는지 감상하는 재미가 있었다. 연합공연을 진행하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 시야와 식견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역시나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오셔서 우리 무대에 열광하며 뛰어놀고, 모두가 음악으로 인해 하나되어 공연을 즐기는 모습에 행복함을 느끼고 연습했던 시간에 대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홍정범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추계 대동제 공연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탈무드
활동시간	2024. 10. 30	비고	
활동목적	1. 본회는 밴드 동아리로서 음악에 대한 실력증진과 팀활동을 통한 멤버십 등 통상 밴드에 부합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에서 주최하는 축제인 추계 대동제에 참여하여 그간 연습해 온 곡을 공연하며 끼를 발산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대운동장</p> <p>활동내용 및 소감 : 본 활동은 탈무드가 교내 축제인 대동제에 출연하여 공연을 한 활동이다. 실기수인 43기, 신입기수인 44기, OB까지 각 기수 별로 연습하여 출연했다. 중앙동아리로서 무조건적으로 공연을 한 것이 아닌 다른 학생들과 여러 번의 오디션을 통해 경쟁하여 모든 팀이 당당하게 무대에 설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44기는 세계적인 명곡인 Coldplay의 Viva La Vida와 유명 인디밴드 검정치마의 Antifreeze를 선보이며 공연 첫 순서로서 무대를 뜨겁게 달구고 열띤 호응을 얻어냈다. 43기는 이무진의 과제곡과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연주하였다. 실기수다운 위트있고 노련한 무대로 열기를 이어갔다. 본 활동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원들의 연주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같은 밴드로서의 합이 더욱 좋아질 수 있었기에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매우 유의미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실력있는 밴드와 밴드가 아닌 다른 장르의 공연자들이 준비한 공연을 즐기며 동아리 부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홍정범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정기 공연 대비 합주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탈무드
활동시간	2024. 10. 28 ~ 2024. 11. 17	비고	
활동목적	<p>1. 본회는 밴드 동아리로서 음악에 대한 실력증진과 팀활동을 통한 멤버십 등 통상 밴드에 부합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p> <p>2. 정기공연에서 동아리 선후배 및 외부인들에게 공연하기 위해서 개인연습과 모두의 합을 맞추기 위한 합주를 진행한다.</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7층 탈무드 동아리방</p> <p>활동내용 및 소감 : 본 활동은 2024 2학기 중간고사 기간 동안 잠시 멈추었던 합주를 진행한 것이다. 대동제 때보다 더 많은 곡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43기의 경우 실기수 동안의 마지막 정기공연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쏘애플의 2월, 서울 같은 연주가 정교하고 섬세해야하는 곡, Tik Tak Tok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빠른 bpm에 기타 솔로가 대부분인 곡 등을 소화하기 위해 오랜 시간 합을 맞추었다. 44기의 경우 더욱 어려운 곡에 도전했다. Material Girl을 통해 기타와 베이스 톤 제작 실력을 키우고, sk8er boy를 통해 빠른 bpm의 곡을 연습하고, Undercover of Darkness를 통해 어려운 리프를 소화하며 실력 증진에 힘썼다.</p> <p>중간고사 기간 동안 합주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시간 동안 개인연습을 더욱 퀄리티 있게 수행해옴으로써 3주간의 합주 기간을 세션들의 합을 맞추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고무적인 점이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홍정범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024 탈무드 2학기 정기공연 : TALMOOD GONNA LIVE FOREVER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탈무드
활동시간	2024. 11.18	비고	
활동목적	<p>1. 본회는 밴드 동아리로서 음악에 대한 실력증진과 팀활동을 통한 멤버십 등 통상 밴드에 부합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p> <p>2. 한 학기동안 연습한 곡들을 동아리 선후배 및 외부인들에게 공연함으로써 통상 밴드에 부합한 활동을 수행하고 한 학기를 정리한다.</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소극장</p> <p>활동내용 및 소감 : 본 활동은 본 동아리 탈무드에서 연간 2회 진행하는 정기공연으로서 진행되었다. 공연의 이름은 "TALMOOD GONNA LIVE FOREVER"로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들과 함께한 음악은 언제나 죽지 않고 남아있다. 우리의 음악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영원 속에 모두가 함께하길 원하는 마음을 정기공연 'live forever'에 담고자 한다는 의미를 제목에 내포하고 있다.</p> <p>공연은 신입기수인 44기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대동제에서 선보였던 Viva La Vida에 더하여 The Volunteers의 Material Girl, The Strokes의 Undercover of Darkness, 윤하의 비밀번호 486을 연주하며, 신입기수다운 패기와 신선함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이어 실기수인 43기는 쏜애플의 2월, 시퍼런봄, 서울, 실리카겔의 Tik Tak Tok 등 총 8곡을 소화하며 실기수 활동기간 2년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자신들의 마지막 정기공연에서 마음껏 뽐냈다. 42기 이상의 선배들, OB 공연에선 Vulfpeck의 곡을 연달아 연주하며 funk 정신을, pantera의 walk를 연주하며 메탈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여유롭고 노련하게 관객들을 사로잡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p> <p>44기의 무대에는 43기가 지원을, 43기의 무대에는 OB가 지원을 오며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 서로서로 돕는 모습에서 부원들간의 화합이 돋보였고 이러한 도움은 앞으로 들어올 많은 후배들에게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홍정범

(9)
J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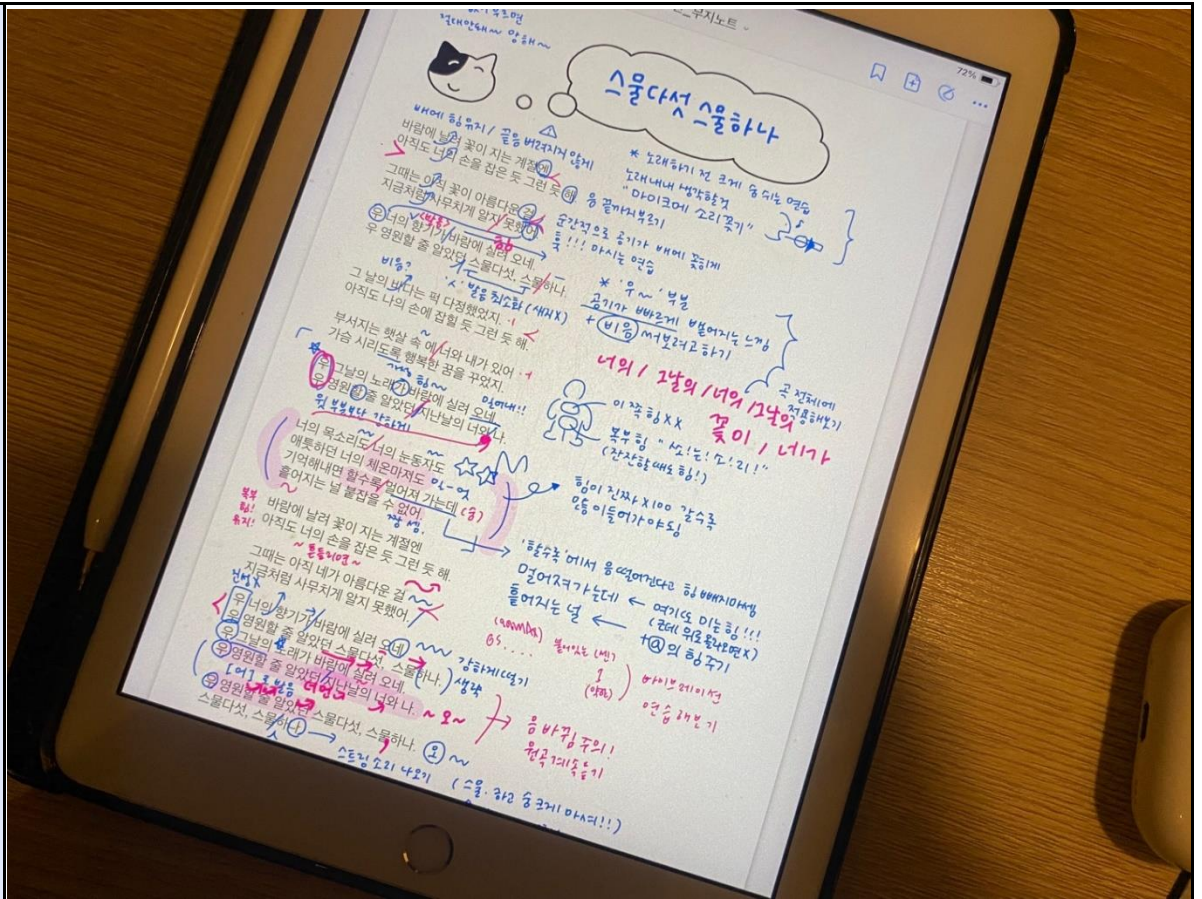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44기 실기수 테스트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탈무드
활동시간	2024. 12. 23 ~ 2024. 12. 31	비고	
활동목적	<p>1. 본회는 밴드 동아리로서 음악에 대한 실력증진과 팀활동을 통한 멤버십 등 통상 밴드에 부합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p> <p>2. 2025년의 탈무드의 주축이 되어 동아리를 이끌어 나갈 실기수를 정당한 기준을 두고 심사를 거쳐 선별한다.</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7층 탈무드 동방</p> <p>활동내용 및 소감 : 탈무드는 입부 0~1년차인 신입기수, 신입기수를 거치고 선별된 실기수, 실기수 활동이 끝나고 신입기수와 실기수의 멘토 역할을 하는 OB로 구성 되어있다. 이 활동은 2024년의 신입기수였던 44기 중 2025년의 실기수가 되어 탈무드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선별하는 활동이었다. 실기수가 된다면 신입기수에게 레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나 실기수의 우선적인 자격요건은 연주 실력이었다. 보컬에게는 각자가 약점을 보였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곡과 개인이 원하는 과제곡을 주어 평가, 기타에게는 공통된 곡을 실력에 따라 bpm을 다르게 하여 평가, 베이스에게는 기본기인 크로매틱 스케일과 어려운 난이도의 과제곡으로 평가, 드럼 또한 어려운 난이도의 곡으로 평가, 키보드에게는 이전에 합주를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던 곡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으로 평가했다.</p> <p>또한 일정 관리, 예산 관리 등의 실무를 도맡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탈무드라는 동아리에 대한 열정과 각오를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생기는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각자의 방법론도 들어보며 심사했다.</p> <p>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선별과정을 거친 결과, 11명의 44기 중 9명이 최종 탈무드 실기수가 되어 2025년의 탈무드를 이끌어가게 되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홍정범

(인)